



Sr. Francis Louise and Sr. Marie B. at Caritas Christi

Introducing Sister Francis Louise Honeychuck and Sister Marie B. Hirt: both have been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for over 80 years. Both are 100 years old, born only a few days apart in November of 1914.

Inspired by the Sisters of Charity who taught her at St. John the Baptist School, **Sr. Francis Louise** entered the community in March of 1932. Starting her ministry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she

then served 60 years helping students with speech, hearing and vision problems at DePaul Institute. "I felt that God had given me a precious gift to devote my time and efforts to teach the students with handicaps



who were entrusted to my care." Sister specialized in teaching speech and language development to the hearing impaired. She also learned to read and write in Braille in order to help her vision impaired students. "God has shown me that success in life is always in the ways we give of ourselves to others in His service."



Today Sister Francis Louise lives at Caritas Christi. She continues to stay in touch with students from DePaul and spends time each day praying in the chapel for the sick, for community benefactors, for world peace and needs around the world.

Sister Marie B. Hirt entered the community in March of 1933. She reported that she wanted to be a sister since the first grade. Sister Marie also began her ministry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and then taught in high schools. Her area of expertise was science and math. Later she served as business manager for the former Sacred Heart High School in Pittsburgh. From 1992 to 1994 she helped elderly clients with financial matters via the Ursuline Center in Pittsburgh. Today Sr. Marie lives at Caritas Christ. She enjoys challenging crossword puzzles, even though she needs a magnifying glass to help her. "My eyesight is poor, my hearing is shot and I can't walk but a few steps in my room. But I thank God every day that he has given me my ability to think clearly." When asked recently for words of wisdom, she responded: "Live one day at a time and let God do his will."



Sr. Francis Louise and Sr. Marie B.
at Caritas Christi

프란시스 루이즈 하니척(Francis Louis Honeychuck)수녀와 마리 B. 허트(Marie B. Hirt)수녀에 대한 소개: 두 분 수녀님께서서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서 80 년을 넘게 사셨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재 100 살 이시고, 며칠 차이로 1914 년 11 월에 태어나셨습니다.

프란시스 루이즈 수녀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St. John the Baptist School) 학교에서 수녀님을 가르치셨던 사랑의 씨튼 수녀회 수녀님들의 영향을 받고 1932 년 3 월에

수도회에입회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첫 사도직을 시작으로, 수녀님께서서는 60 년 동안을 드폴학교(De Paul Institute)에서 언어, 청각,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저의 돌봄을 허용해준 장애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칠수 있는 귀한 선물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셨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수녀님께서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말하기와 언어 발달’을전공하셨고 시각장애아들을 돕기 위해 점자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삶에서의 성공은 언제나 하느님을 위한 봉사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바로 그 길에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수녀님께서서는 현재 까리타스 크리스티에 살고 계십니다. 드폴학교의 학생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서 아픈 사람들, 수도회의 은인들, 세상의 평화, 그리고 세상 도처의 필요를 위해 매일매일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리 B. 허트수녀님은 1933 년 3 월에 수도회에 입회하셨는데,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수녀가 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수녀님 역시 초등학교 교사로 사도직을 시작하셨고 그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수녀님의 전문



분야는 과학과 수학입니다. 후에 수녀님께서서는 피츠버그에 있는 전 성심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1992 년부터 1994 년까지 수녀님께서서는 피츠버그의 우루술라 센터 (Ursuline Center)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진 노인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수녀님은 현재 까리타스 크리스티에 사십니다. 비록 확대경의 도움을 받으셔야하지만 수녀님께서서는 낱말퍼즐 풀기 도전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제 시력은 아주 나쁩니다. 귀는 안들리고 방에서 몇 발자국 떼는 것 외에는 견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저에게 맑은 정신을 주셨으니 매일 감사드릴 뿐입니다.” 얼마 전 수녀님께 좋은 말씀 한마디 들려주시길 청했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하루 사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맡기십시오”